

1. 돈 - 12

구제 (救濟:GIVING)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 (눅 6:38)

* * *

1. 우리는 ‘왜’ 구제해야(=주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사전적 의미에 제한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구제를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성경이 정의하는 구제는 광의적이며, ‘주는 행위’(giving) 자체이다. 문맥에 따라 ‘구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단순히 말 그대로 ‘주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내가 번 돈이나 얻은 소유를 누구에게 꼭 주어야만 할까 싶지만, 수고하는 활동에는 돈을 벌고 재산을 쌓아가는 일만 있지 않고, ‘줄 것을 주어야 하는 일’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롬 13:7). 나라에 내는 세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라의 권세자들은 백성의 부를 착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다. 즉, ‘선을 베푸다’는 것은 ‘나누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백성의 복지를 위해 ‘나누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으로 그 사역을 하겠는가?

롬 13:4-7 _____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신다. 이 문맥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줄 것을 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공연히 칼(=심판할 권세)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칼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수 있도록 주신 권세이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줄 것을 주는 일’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또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히 9:14).

그러므로 선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의지와 바람이 있는 것이다(히 13:18). 즉, 그리스도인은 줄 것을 주지 않고 속여 감추거나, 나눌 것을 나누지 않고 소유만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마땅히 줄 것을 주고, 나눌 것은 자원하여 나누는 자인 것이다.

히 13:18

그런데 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나라에 내는 세금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마 22:17)라고 묻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답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한 의도가 자기를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우려는 것임을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는 어느 쪽에도 드리고 싶지 않은 ‘악한 심사’가 있는 것도 꿰뚫어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만 마땅히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이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어 나라 살림이 꾸러지게 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것(=연보)’을 하나님 나라(=교회)에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십일조’의 문제는 단순히 ‘십 분의 일’이라는 비율의 문제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어서 더 이상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도 아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한, 권세자들이 나라 경영을 위해 세금을 제정하고 거두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동안 하나님은 교회 경영을 위해 헌금을 제정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말 3:8-10

나라의 세금이 백성의 복지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고스란히 하나님 백성의 복으로 부어진다. 둘의 차이라면 땅의 나라에 드린 세금으로 얻는 혜택은 여기서 누리고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드린 헌금은 땅에서도 자신과 ‘가난한 이웃’이 더불어 유익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바뀌어 ‘자기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혜택이 있는 것이다(눅 16:12).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복을 쌓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헌금은 자신의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행될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우리 삶이 복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헌신된 백성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재물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선한 일을 진척시키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지속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더욱 축복하시는 것이다.

Q. 율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율법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기뻐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경우들이 많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내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대상 29:6-9; 고후 8:1-5 _____

* * *

2. 우리는 ‘누구’를 구제해야(=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내는 헌금은 ‘누구에게’ 쓰여야 하는가? 이 경우에도 ‘한 나라의 경영’을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나라의 세금은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삶, 국민복지 그리고 국가사업에 쓰인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역자, 하나님 백성의 필요, 특별히 가난한 형제자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쓰여야 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범주가 실제적인 ‘구제’와 직결된다. 구약은 ‘구제’의 범주에 네 개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시켰는데, 성전 사역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 나그네이다(신 26:12). 성전 사역자들은 첫째 범주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둘째 범주인 가난한 부류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지파 백성들과는 달리 땅의 기업과 분깃을 분배 받지 못하고, 이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헌금)’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도 모두 스스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 사역자들(딤후 5:18; 고전 9:14), 가족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교인들(약 1:27; 딤후 5:4, 16), 그리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들(마 10:10)일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주는 것’ 곧 ‘선행’은 교회 내부의 가난함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의 선행은 하나님 나라 경영의 세 번째 범주, 즉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교회도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특별 목적으로 드려진 헌금을 제외하고는 재정을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대내외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주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빌 4:18-20).

빌 4:18-20 _____

Q. 나/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에 얼마나 힘써 행하고 있는가?

갈 2:9-10 _____

* * *

3.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구제해야(=주어야) 하는가?

‘주는 것’(=선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라 ‘태도’이다. 돈만 주고 태도가 나쁜 것은 가난한 자를 빨리 떼 내려는 의도이든지, 그를 멸시하는 태도이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보실 때 돈 액수를 보시지 않고 여인의 태도를 보셨던 것처럼(눅 21:1-4),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헤아리실 때도 ‘얼마나 크게’(행 5:1-2), ‘얼마나 알려지게’(마 6:1-4)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행 11:29), ‘얼마나 기쁘게’(출 25:2), 그리고 ‘얼마나 일상적으로’(마 25:37-40; 고전 16:2) 하느냐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헤아림으로 행하는지에 따라 ‘그 헤아림 대로’ 갚아 주신다(눅 6:38). ‘계산’을 따라 주면, 하나님도 그 계산법대로 갚아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따라 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갚아 주신다. 전자는 유한한 액수로 계산이 끝나고, 후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대로 은혜가 삶에서 끊이지 않고 부어진다(사 58:9b-12).

Q. 나는 가난한 형제자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따르는가, 아니면 계산이 앞서는가? 인간관계에서 나의 ‘헤아림’의 기준은 무엇인가?

요일 3:17-22 _____

* * *

기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따라 영원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심장에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심정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